

韓国における水中発掘の現状

文煥哲 Whan Suk MOON
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

韓国の水中考古学の調査は主に探査（サーヴェイ）と発掘の二つに分けられ，韓国文化財庁が許可をした組織・団体のみがこれらの調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水中探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組織は10を数えるが，発掘を行える組織は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のみである。当研究所は例年およそ10件の探査と2件の水中発掘を行っている。

西暦2000年以前は韓国国内に水中考古学を専門としたダイバー，発掘のための道具，水中発掘のノウハウはほとんど存在していなかった。それまでは，1970年代の新安沈船の発掘に始まり，1980年代の泰安や保寧における調査，2002年の群山・飛雁島 1次調査まで韓国海軍の支援のもと，水中での発掘調査を行ってきた。しかし，群山・飛雁島の2次調査において，海軍の支援がむずかしくなり，当研究所が主体となり調査をおこなうに至った。今日，当研究所は水中考古学調査の専門性を高めて調査を継続して行っている。発掘だけでなく探査方法についても様々な研究がおこなわれてきた。また，当研究所では新たに建造された水中考古学調査専用船Nurian号も管理・保有している。このように，当研究所はアジアで水中考古学の研究をリードしているといえよう。

韓國 水中發掘의 現況 紹介

文煥哲 문 환석
國立海洋文化財研究所

The Introduction of Present State on the Underwater Excavation in KOREA

Whan Suk MO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136, Namnong-ro, Mokpo, Jeonnam, KOREA*

한국의 수중문화재조사는 크게 地表調査와 發掘調査로 나누며，일정한 조사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 文化財廳에 登錄·許可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은 10곳이나，발굴조사는 國立海洋文化財研究所가 유일하게 전담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매년 10여건의 수중문화재 신고해역에 대한 탐사조사와 2건의 수중발굴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 초까지 수중발굴을 위한 전문 잠수사와 기술，장비가 거의 없어，전적으로 해군의 지원에 의존하여 1970년대 新安海底發掘，80년대 泰安·保寧 일대 해역 탐사와 2002년 群山 飛雁島 1次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해군의 지원이 어려워진 群山 飛雁島 2次 수중발굴부터는 우리 기관 스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수중조사 방법 등을 습득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수중탐사 장비개발과 수중발굴 전용선을 운용하는 등 우리 기관의 수중발굴 전문성과 성과는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